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 Vol. 8, No. 2, 323 - 353

## 청소년들의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

이 은 희<sup>†</sup>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강 은 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특성들(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및 집단따돌림 피해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구조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지배성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증가시키고, 우월감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결핍이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증가시키고, 자기찬미는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학교폭력 상담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

최근 우리사회에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종류 이상의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6%이고, 그 중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4.2%로 나타났으며(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신의 조사(한계례신문, 2001, 9, 23)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응답자가 62%로 나타났다. 이는 2명중 1명 이상의 수준으로 집단따돌림 피해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희, (320-711) 충남 논산시 내동 26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E-mail: ehleeehlee@hanmail.net

당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본용(1997)은 집단따돌림을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속된 집단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보았으며, 박경숙 등(1998)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집단따돌림은 신체적인 유형과 심리적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Rigby, 1996), 신체적인 유형에는 때리기, 발로차기 등이 포함되고, 심리적인 유형에는 언어적인 학대, 별명 부르기, 위협적인 몸짓, 몰래 따라다니는 행동, 한 학생의 집에 악의적인 전화 걸기,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 감추기, 단체활동에서 따돌리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집단따돌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주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성격특성을 추정하거나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정환경이나 또래들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집단과정에 집중되어 왔다(Kaltiala-Heino, Rimpela, Rantanen & Rimpela, 2000). 이를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성격특성이 다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Olweus(1993)는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되기 쉬운 학생들은 동급생보다 육체적인 힘이 약하거나, 자기 몸에 대한 걱정이 많거나, 소심하고 예민하

고 조용하고 뒷전에 쳐지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이고 수줍음이 많거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또래 집단에서 체력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거나, 동급생보다 성인들과 더 가까운 행동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형제들에게까지 공격적이라는 의미에서 공격적 성격유형으로 보았으며, 일반학생들보다 폭력과 폭력수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충동성과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한 성격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본용(1997)은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불안이 높거나, 왜곡된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지니고 있거나, 자기외모에 대한 지나친 자기애적 경향을 지니고 있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교현과 왕소정(2000)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서 아동의 성격원인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피해학생들의 성격특성으로서는 내성적, 소극적 성격, 잘난 체하는 성격,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이 주로 지적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서 성격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아무나 집단따돌림의 지속적인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개인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과 따돌리는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개인특성

을 지닐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들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양한 성격특성들이 발견되었다; 자아존중감(한종철, 김인경, 2000; Andreou, 2000; O'Moore & Hillery, 1991) 지배성(박정민, 1998; 이종승, 2000; 이창식, 2000; Olweus, 1994; Stephenson & Smith, 1989; 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자기애적 성격(박정민, 1998; 이호분, 1998; 한영주, 1999), 충동성(이창식, 1999; Olweus, 1993; Stephenson & Smith, 1989), 통제의 위치(Andreou, 2000; 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집단따돌림 경험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까지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같은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Kaltiala-Heino et al, 2000)와, 학교에서의 학습과 집중의 곤란, 학교적응 곤란,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높은 스트레스 수준 (Turkel & Eth, 1990; Sharp & Thompson, 1992; Gilmartin, 1987; Sharp, 1995; Karatzias et al, 2002에서 재인용)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lweus, 1994).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집단따돌림의 악순환이나 확대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이 요청된다.

그런데 집단따돌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특성이 어떻게 집단따돌림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탐색적이고 단편적인 실태조사 형태의 연구가 주종

을 이루고 있으며, 집단따돌림 행동과 성격특성에 관련된 연구들도 대부분 집단따돌림 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나 가해자와 피해자 집단 구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성격특성들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실제로 유발하는지를 검증하는 인과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성격특성들과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유발하는 성격특성들이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간의 관계는 다음의 이론들을 통하여 가정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유발에 따른 반응모델(Bandura & Walters, 1963; 김준호, 1998에서 재인용)에서는 신체적 고통, 위협, 소음 등과 같은 혐오자극이 개인의 정서적 유발수준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이미 준비된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지과정은 공격성 유발요인과 조절요인과의 일정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표출된다. 공격성 유발요인으로서 모델링의 영향(금지해제, 촉진, 정서유발), 혐오적 처우(신체적 공격, 언어적 위협과 모욕, 보상의 부당한 축소), 자극의 증가, 지시적 통제, 부조화된 상징적 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외적강화, 처벌, 대리적 강화, 자기 스스로 제공하는 강화 등의 네 가지 기제의 조절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되고 재생산된다(윤진, 1996). 일반적으로 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7).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집단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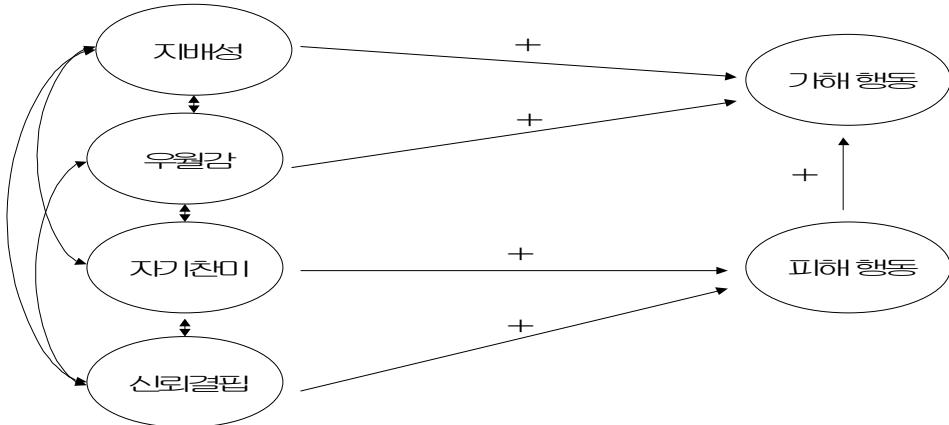


그림 1.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가설적 모형

그림 1.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가설적 모형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을 유발함을 가정한다.

생활양식이론에서는 동질성 원리에 의해서 가해자의 특성을 지닌 집단의 구성원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일수록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김준호, 1998에서 재인용). 즉 폭력을 수반하는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은 그들의 행위 자체의 속성과 더불어 폭력가해자들과의 접촉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폭력피해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력피해에서 가장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은 폭력을 많이 저질러 본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차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을 피해경험을 유발하기도 하고,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을 유발하기도 하는 양방 관계를 가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선행변인으로서 지배성과 우월감을 피해행동의 선행변인으로서 자기찬미와 신뢰부족 변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변인간의 가설적 경로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지배성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지배성이란 인간관계에서의 과업수행, 결정, 결단에서의 지도력, 주동력, 창안력, 설득력, 통솔력, 진취성과 박력, 자기결정, 집단에서의 적극적 참가, 주체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96).

사회적 맥락에서의 지배성은 개인이 자원을 획득하려는 상황에서 싸움이나 친화전략을 사용

하여 타인과 경쟁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이나 싸움과 같은 공격성이나 신체적 주장행동이 어떤 상황에서는 지배성과 연결된다 (Hawley, 1999).

지배성은 전형적으로 승자와 패자간의 싸움의 교환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지배성의 싸움적 측면은 집단형성의 초기에 두드러지지만 동물 행동학자들과 발달 심리학자들은 지배성을 신체적으로 혐오를 주는 차원(예, 또래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친화적 차원(리더십, 조정)이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Vaugh & Walters, 1981).

지배성은 공격적 차원들과 친화적 차원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개인적 손실로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초기 집단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시기에는 지배성의 공격적 차원들(예, 집단따돌림)을 주로 사용하며, 집단내에서의 사회적 위치가 안정된 후에는 주로 지배성의 친화적 차원들(예, 동맹관계와 또래집단망의 형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llegrini, & Bartini, 2001).

청소년들이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타인들과 경쟁할 때, 지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Hawley, 1999). 그런데 가해 청소년들은 지배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또래 집단내에서 공공연히 공격성을 표출하는데 (Pellegrini & Smith, 1998), 주로 신체적으로 약하고 교사들에 의해서 피해자로 평가되는 학생들을 목표로 삼는다(Pellegrini, 1995). 결국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의 공격성과 지배성의 주장은 선택된 또래 집단들에서 지도력을 성취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김용태와 박한샘(1997)은 가해청소년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며, 질투심이 많고, 싸움을 잘하는 행동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경숙 등 (1998)은 가해학생들은 집단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힘이 세거나, 약거나, 인기가 있거나, 성격적으로 짓궂거나 또는 장난이 심한 행동특성 중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창식(1999)은 집단따돌림 가해 중학생들이 피해 중학생들에 비해서 더 지배성과 충동성이 높으며 더 신경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박정민(1998)은 비행청소년들이 일반고등학생들 보다 더 자기애성, 지배성과 공격성간에 더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종승 (2000)은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서 지배성, 정신장애 경향, 신경증적 경향, 반사회적 경향이 높은 반면에 성취성과 안정성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Olweus(1991)는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이 충동성과 지배성이 강함을 발견하였다. Pellegrini 등 (1999)도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지배성이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Roland와 Idsoo(2001)는 노르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격성과 주도적 친화성(가해학생-가해학생의 연합관계)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지배성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선형변인임을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배성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배성이 높을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 가설 1: 높은 수준의 지배성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다.

### 우월감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자기애는 치료적 관점에서는 성격장애의 일부로 보고 있다.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자기의 중요성과 독특함에 대한 과장된 느낌, 끝없는 성공과 권력, 재능, 미모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의 열중,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믿음, 과도한 친사 요구, 폐배를 참지 못함, 특권 의식과 특별한 대우나 복종을 기대함,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 타인을 질투하거나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는 믿음, 감정이입 및 공감의 결여 등을 그 특징으로 보고 있다.

즉 자기애적 성격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앙양(Sedikides, 1993; Sedikides & Strube, 1997)으로서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고(Gabriel, Critelli, & Ee, 1994) 과장되게 자신의 수행을 평가한다(John & Robins, 1994). 그래서 전형적인 자기애적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긴다(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의 형성은 정신분석학과 애착이론을 통해서 가정할 수 있다. Freud는 자기애적 사랑과 애착적 대상애를 구분하였다. 자기애적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현재의 이미지와 같거나, 자신의 과거 이미지와 같거나, 자기가 되고 싶었던 이미지이거나, 과거 자신의 일부였던

누군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애착적 대상애란 자신을 먹여주고 키워준 여인의 이미지와 같거나, 자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 남자의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무석, 1995, pp. 124). 또한 Freud는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애적 태도와 애착적인 두 가지 태도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즉 자기애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기고양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애착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고양에 관심이 있다고 보았다(Raskin, Novac, & Hogan, 1991). 그런데 Freud는 자기애적인 전지전능감과 웅대한 자기개념을 기저에 있는 대상상실로 인한 우울에 대한 방어로 보았으며, 자기애가 자신의 이상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자존감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한수정, 1999).

Kernberg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그 개인의 내적인 자기표상과 대상표상들을 위협하는 초기 구강기의 욕구좌절로부터 기원하는 수많은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다. 심각한 좌절, 실망, 박탈, 상실에 직면할 때 암도적인 격노와 미움이 아동에게 일어나고 그들의 분노가 사랑해주는 사람과 혹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위협받는 자아와 대상의 표상들을 보전하려는 시도로서 적대적 공격성이 내부세계로부터 나와서 외부세계에 투사되어진다고 보았다(Heisman & Cook, 1998).

아동기의 양육자와의 거부적 애착유형과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Rosenstein과 Horowitz(1996)의 연구, 아동기 양

육자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자기애적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은 청소년기의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Zamostny, Slyster와 Rios (1993)의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기의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거부된 경험이나 좌절이 청소년들의 자기애적 성격을 형성하고 이러한 성격이 적응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적 성격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Raskin과 Hall(1981)이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개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NPI를 요인분석한 결과 Emmons(1984, 1987)의 연구에서는 지도력/권위, 자기몰입/자기칭찬, 우월성/거만, 좌취성/특권의식의 4개로 나타났으며, Rakin과 Terry(1988)의 연구에서는 권위, 과시성, 우월성, 허영심, 좌취성, 특권의식, 자기충분성의 7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NPI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박정민, 1998; 한수정, 1999; 정남운, 2001에서 재인용). 박정민(1998)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Raskin과 Hall(1981)이 개발한 NPI 문항들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권의식, 권력, 자기찬미, 우월감의 4개의 하위요인들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우월감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자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명성, 권력, 사랑에 관하여 환

상을 통하여, 외부적으로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고, 찬미와 관심을 추구함으로써 과장된 자기개념을 유지한다(Campbell, Foster, & Finkel, 2002). 특히 자기애적 성격자들은 자기고양이나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의 추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우월추구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 Morf, 1998),

박정민(1998)은 비행청소년들이 일반고등학생들 보다 더 자기애성과 공격성간에 더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비행집단과 일반청소년집단의 효과적인 판별변수가 자기찬미와 우월감임을 확인하였다.

한영주(1999)는 집단따돌림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 집단에 비해서 공격성과 자기애가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Anderson도 캠 일원들이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택한다고 했다(박정민, 1998).

구본용(1997)은 따돌리는 아동의 심리적 이유를 자아정체감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감, 왜곡된 우월감의 추구,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경향, 타인에 대한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윤덕중(1997)은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하는 위치에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대체로 신체적으로 크고 우세하며 힘이 세고, 충동적이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 강하고, 자기중심적 이어서 자기주관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민감치 못한 성격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욕구충족이 방해받으

면 폭력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우월감과 집단따돌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자기애적 성격 중 우월감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선행변인임을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월감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우월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 가설 2: 높은 수준의 우월감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다.

#### 자기찬미 →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자기찬미와 집단따돌림 피해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박정민(1999)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박정민(1999)은 일반 남학생과 비행남학생집단 모두에서 자기찬미가 공격성의 하위척도인 부정성과 의심을 유의미하게 예언함을 발견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기찬미가 강한 남학생들일수록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더 하며, 타인을 믿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불안한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양식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도발적 피해자들(Olweus, 1993)의 특성으로서 자기찬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또래 집단내에서 거부되고 집단따돌림을 더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은 집단따돌림 피해청소년들이 절난척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선

생님한테 고자질하고, 공부만 잘하고 똑똑한 척하는 행동특성이 있으며, 박경숙 등(1998)은 집단따돌림 피해학생들을 크게 약한 학생과 평범한 학생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평범한 학생들은 뛰는 행동(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 돈 많은 척, 공부 잘하는 척, 짱인 척)을 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준재와 광금주(2000)는 피해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잘난 척하거나,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얼굴이나 외모가 이상하거나,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경우임을 발견하였다. 조은경과 박한샘(1997)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잘난척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등 또래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행동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준상(2002)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성 중 가장 높은 반응빈도를 보인 것이 절난척하는 행동특성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자기애적 성격 중 자기찬미가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의 선행변인임을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기찬미가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자기찬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 가설 3: 높은 수준의 자기찬미는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다.

#### 신뢰결핍 →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또래로부터의 집단따돌림은 청소년기에서뿐만

아니라 학령기전에도 경험되는(Kochenderfer & Ladd, 1996), 비교적 매우 지속적인 경험으로서 (Hodges & Perry, 1999)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적응적 특성이 집단따돌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Finnegan, Hodges, & Perry, 1996; Troy & Sroufe, 1987). 이런 부적응적 특성이 형성되어서 집단따돌림을 유발하는 기제는 정신분석이론과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Fruead는 생후 첫 1년 동안을 구강기로 이름을 붙였는데, Erikson은 이 단계에 유아가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충분한 신체적 정서적 필요가 채워진다면 신뢰감을 획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부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단계에서 불신에 기초한 세상에 대한 견해,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데 대한 두려움, 애정의 거부, 사랑과 믿음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고립과 위축, 긴밀한 관계형성유지의 무능 등의 후기 성격문제가 발생되어서(Corey, 2001/2003) 청소년기에 또래집단 내에서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들에게는 유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와의 불안애착의 가족사가 있음이 발견되었다(Jacobson & Wille, 1986; Troy & Sroufe, 1987; Finnegan, Hodges, & Perry, 1998). Waterer, Wippmwn과 Sroufe는 학령전 시기의 애착특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15개월 때 불안전하게 애착한 아동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움추러 들었으며 다른 아이들과 잘 섞여 놀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불안하며 불안전하게 애착한 유아는 타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인관계에서 움추러 든 것으로 보

인다(최순영, 김수정, 1999, pp. 48).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Ladd와 Ladd(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높은 강요적 요구와 낮은 수용성이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집단따돌림 피해행동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결국 부모로부터 수용받지 못하면 아동들은 불안과 같은 해로운 정서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집단 따돌림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적이거나 관계적 역할들을 더 수행하게 된다. 즉 부모가 아동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반응하는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를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 결과 자신의 감정상태를 더 억제하게 되어(예, 불안, 양가감정, 낮은 자아존중감, 신뢰결핍), 수동적, 양면적, 분리적, 회피적, 위축적인 대인관계 태도를 형성하여서 (Renken, Egeland, Marvinney, Mangelsdorf, & Sroufe, 1989; Rubin, LeMare, & Lollis, 1990; Ladd & Ladd, 1998 재인용) 또래집단 내에서 거부되고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미, 문형준과 홍혜형(1998)은 집단따돌림 피해 내담자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의심, 왜곡된 지각으로 인한 부적절하고 엉뚱한 행동, 적절한 사회기술의 부족 등의 심리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경숙 등(1998)은 집단따돌림 피해학생들을 크게 약한 학생과 평범한 학생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평범한 학생들은 남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본용(1997)도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신뢰결핍 특성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확인

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생의 초기에 부모로부터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태도를 형성하여 집단따돌림 피해유발 특성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신뢰결핍이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의 선형변인임을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신뢰결핍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신뢰결핍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 가설 4: 높은 수준의 신뢰결핍은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다.

####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김준호(1998)의 조사에서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학생들이 40.7%로 나타났으며 이혜경과 김혜원(2001)의 조사에서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학생들이 40.8%로 나타나서 집단따돌림 집단(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중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지 가해 혹은 피해만을 단일하게 경험하는 청소년들보다 가해와 피해를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가해-피해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해-피해 집단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유발에 따른 반응모델에 의거하여 먼저 피해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해행동에 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준상(2002)은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들

이 화가 치밀어 올랐으며, 외롭다고 느꼈으며, 억울한 생각이 들었으며, 따돌림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훈구(2001)는 집단따돌림 가해의 예측요인으로서 가정폭력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송동호, 육기환, 이호분과 노경선(1997)은 정신과에 내원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 13명 중 4명이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일정한 기간 겪은 후 피해에 대한 강한 보상심리 또는 가해자에 대한 동일시 등에 의하여 공격적인 행동장애 내지 폭력가해 사례가 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선형변인임을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더 집단따돌림 가해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 가설 5: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혜경과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행, 학년, 교사폭력, 친구수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유의미한 예측변수로서, 부모폭력, 대인스트레스, 가해경험, 또래폭력, 교사폭력, 학년, 친구지지, 가족지지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나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순환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 피해행동을 유발하는 경합모형,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무관련되는 경합모형,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순환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방법

###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G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4개교에 재학중인 1·2학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구에 위치한 각 학교별로 3학급씩 할당하여 학년별, 남녀별 비율을 비슷하게 설정하여 총 12학급의 450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거한 450부 중 응답한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42부를 제외한 408명(남학생 204명, 여학생 204명)의 자료를 가지고 사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변량 극단치로 추정되는 38부를 제외한 370명(남학생 185명, 여학생 185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설문지의 측정변인들은 집단따돌림 행동척도, 지배성, 자기애적 성격, 신뢰결핍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척도:** Neary와 Joseph (1994)이 만 8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한 4점 척도의 집단 따돌림 행동척도(Bulling-Behavior

Scale)를 이춘재와 곽금주(2000)가 수정 번안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척도:** Callaghan과 Joesph(1995)이 만 8세 이상의 대상으로 개발한 4점 척도의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 (Peer-Victimization Scale)를 이춘재와 곽금주(2000)가 수정 번안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77$ 이었다.

**지배성 척도:** 학생들의 지배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가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하여 1996년에 재 표준화된 중학생-성인용 성격진단검사 중 지배성 척도 35문항만 사용하였으며, ‘예-아니오’ 방식의 2점 척도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바꾸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분석결과 내적일치도가 떨어지는 2문항을 제외한 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9$ 이었다.

**우월감과 자기찬미 척도:** Raskin과 Hall(1981)이 개발한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Raskin과 Terry(1988)가 요인분석하여 재구성한 문항들을 박정민(1999)이 번안한 자기애적 성격 척도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바꾸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SAS를 이용하여 자기애적 성격 척도를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고 각 문항들내의 요인구조의 탐색에 목적이 있어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사전연구들에서 각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을 선정할 때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경우에만 포함시켰으며(Cudeck & O'Dell, 1994). 특정 문항이 2개 이상의 요인에 대하여 .40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요인분석결과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특권의식, 권력, 자기찬미, 우월감)이 추출된 박정민(1999)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주로 권력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력(5문항)”으로, 요인 2는 주로 자기찬미와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찬미(7문항)”로, 요인 3은 주로 우월감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월감(3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요인 1이 .74, 요인 2가 .76, 요인 3이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2와 요인 3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결핍 척도:** 대인관계에서 인간본성과 신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Sutton과 Keogh(2000, 2001)가 사용한 Kiddie-Mach Scale 20문항을 역번역 과정을 거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Sutton과 Keogh(2000, 2001)의 연구에서처럼 3개의 요인(인

간본성에 대한 신뢰결핍(lake of faith in human nature), 불신(mistrust), 부정직(dishonesty)}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이 전체 변량의 45.6%(고유가 = 1.97)를, 요인 2가 31.3%(고유가 = 1.35), 요인 3이 23.0%(고유가 = 1.00)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요인 1(4 문항)이 .70, 요인 2(6문항)가 .57, 요인 3(4문항)은 .49이었다. 요인 2와 3은 내적일치도가 낮아서 최종분석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고 착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감하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고 친절하다”의 4문항(역코딩)으로 구성된 요인 1(인간본성에 대한 신뢰결핍)만 사용되었다.

## 자료분석

지배성, 우월성,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간의 가설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sup>VIII</sup>(Joreskog & Sorobom, 1993)를 통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공변량 모형들의 부합도를 측정하는 단일지수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부합지수에 관한 다중지표를 제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Bollen, 1989; Marsh, Balla, & McDonald, 1988; Tanaka, 1993).  $\chi^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GFI(Goodness of Fit Index, Joreskog & Sorbom, 1981; Tanaka & Huba, 1985, 1989), CFI(Comparative-Fit-Index, Bentler, 1989,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1990),  $\chi^2$ ,  $\chi^2$ 에 대한  $p$ 값

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chi^2$ 는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의미있다는(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고(Bentler & Bonett, 1980) 많은 변인들과 자유도를 가진 모형들은 언제나 유의미한  $\chi^2$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chi^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Hoetler(1983)는  $\chi^2/df < 2$  일 때 제안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다변량 극단치를 SAS의 R-student, Cook's Distance, Dffits, Dfbetas 통계량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38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공변량 구조모형의 자료에서 대칭도(skewness)  $> |3.0|$ , 첨도(kurtosis)  $> |10.0|$ 인 경우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Kline, 1998). 그런데 본 연구의 모

든 척도들은 첨도와 편포도가 1을 넘지 않아서(자배성, 편포도 = -.05, 첨도 = -.20; 우월감, 편포도 = .15, 첨도 = -.41; 자기찬미, 편포도 = .14, 첨도 = -.25; 마키아벨리즘 편포도 = .03, 첨도 = -.52;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 편포도 = .06, 첨도 = -.64; 집단따돌림 피해 행동, 편포도 = .38, 첨도 = -.20) 미지수 추정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측정단위가 각기 달라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추정을 위한 자료로서 측정단위가 표준화된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casewise) 제거법을 이용하여 상관행렬을 측정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에 의해 제안된 2단계 공변량 구조모형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제안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부합성이 검토되고 그 다음 제안된 공변량 구조모형의 부합도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안된 공변량 구조모형과 다른 경합모형들과의 부합도가 비교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제안 모형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가해경험을 유발하는 모형으로서, 집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listwise deletion, N = 370)

|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1      | 2       | 3      | 4      | 5    | 6 |
|----------------|------|------|--------|---------|--------|--------|------|---|
| 1.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 | 1.96 | .54  | —      |         |        |        |      |   |
| 2. 집단따돌림 피해 행동 | 1.87 | .51  | .50*** | —       |        |        |      |   |
| 3. 자배성         | 3.07 | .51  | -.09   | -.31*** | —      |        |      |   |
| 4. 우월감         | 2.79 | 1.02 | -.09   | -.11**  | .49*** | —      |      |   |
| 5. 자기찬미        | 3.00 | .88  | .06    | -.05    | .45*** | .43*** | —    |   |
| 6. 신뢰결핍        | 3.02 | .87  | .10    | .19***  | -.10   | -.13*  | -.00 | — |

\* $p < .10$ . \*\* $p < .05$ . \*\*\* $p < .01$ .

표 2.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

| 측정모형 | $\chi^2$ | $df$ | $p$  | $\chi^2/df$ | GFI  | NFI  | CFI  | RMSEA |
|------|----------|------|------|-------------|------|------|------|-------|
| 6요인  | 104.17   | 75   | .015 | 1.389       | .964 | .954 | .986 | .032  |

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무관련 모형, 가해경험이 피해경험을 유발하는 모형, 가해경험이 피해경험을 유발하기도 하고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을 유발하기도 하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합모형들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가해경험→피해경험 경합모형은 쌍방적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비축차모형(nonrecursive model)으로서 이 모형에서 얻어지는 해가 단일함을 보장하는 모형인정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쌍방관계에 있는 내생변인들만큼의 도구변인(한 내생변인과는 직접적인 경로가 있지만 다른 내생변인과는 직접적인 경로가 없는)이 요청되는 데 (Maruyama, 1998) 본 연구의 가해경험→피해경험 경합모형에서는 가해경험에는 지배성과 우월감이, 피해경험에는 자기찬미와 마키아벨리즘이 도구변인으로서 작용을 하여 모형 인정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이 경합모형에서는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 내생변인들간의 교란(disturbance)이 공변하도록 하였다(Schaubroeck, 1990).

각 척도는 측정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측정치들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평균하고 그 다음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각 변인당 2-3개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Nunnally, 1978). 이렇게 개별적인 문항들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척도점수들(scale

scores)을 이용한 이유는 표집크기대 모수추정치의 비율이 공변량 구조모형에서 모형부합도와 수렴도 및 표준오차의 주요한 결정인이 되기 때문이다(Hayduk, 1987). 즉 표집이 모수추정수의 5배 이상이 되어야만 최대기능법에서 안정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어서 지배성, 자기찬미, 신뢰결핍은 2개씩의 척도 문항들로, 우월감,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은 3개씩의 척도문항들로 구성하였다.

## 결과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었듯이 측정변인들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은 있지만 변인들간에 가장 상관이 높은 경우가 가해행동과 피해행동간의 관계로서,  $r = .50$ ,  $p < .001$ ,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6요인(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정모형인 6요인 측정모형이  $\chi^2/df$  가 기준치인 2이하이며 GFI, NFI, CFI 지수들이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 지수는 기

표 3.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부하량

|       | 가해행동 | 피해행동 | 지배성 | 우월감 | 자기찬미 | 신뢰결핍 |
|-------|------|------|-----|-----|------|------|
| 가해행동1 | .77  |      |     |     |      |      |
| 가해행동2 | .79  |      |     |     |      |      |
| 가해행동3 | .74  |      |     |     |      |      |
| 피해행동1 |      | .63  |     |     |      |      |
| 피해행동2 |      | .68  |     |     |      |      |
| 피해행동3 |      | .82  |     |     |      |      |
| 지배성1  |      |      | .83 |     |      |      |
| 지배성2  |      |      | .94 |     |      |      |
| 우월감1  |      |      |     | .87 |      |      |
| 우월감2  |      |      |     | .64 |      |      |
| 우월감3  |      |      |     | .65 |      |      |
| 자기찬미1 |      |      |     |     | .79  |      |
| 자기찬미2 |      |      |     |     | .84  |      |
| 신뢰결핍1 |      |      |     |     |      | .89  |
| 신뢰결핍2 |      |      |     |     |      | .70  |

준치인 .05이하로서 만족할만한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집단따돌림피해행동 각 요인에 각 측정변수들이 3.78에서 20.54 사이의  $t$ 값을 보여 모두 유의미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변인들은 구성개념들이 서로 다른 6개의 요인구조임이 확인되었다.

###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가설적 구조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그림 2(표준화된 추정치)와 표 4(비표준화된 추정치)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모형에 제시된 5개의 경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으로 가는 4개의 경로 모두와 내생변인들간의 1개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의미하게 나타난 각각의 경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배성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청소년들의 지배성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0) = 4.17, p < .01$ . 즉 지배성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월감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청소년들의 우월감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0) = -2.58, p < .01$ . 즉 우월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덜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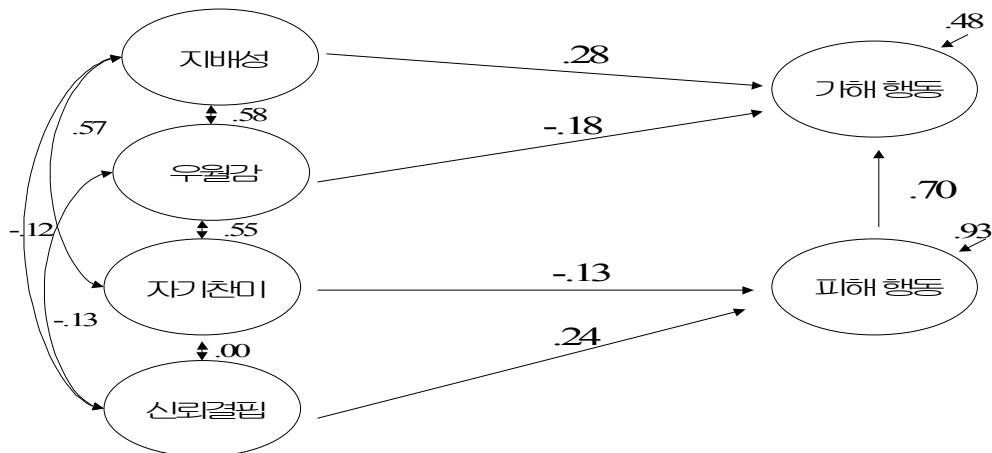


그림 2. 지배성, 우월감, 자기존미, 신뢰결핍과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 간의 표준화된 구조 모형

그림 2. 지배성, 우월감, 자기존미, 신뢰결핍과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 간의 표준화된 구조 모형

표 4. 최대가능법에 의한 구조경로계수 추정

| 경로        | 비표준화된 추정치(표준오차) | t값      |
|-----------|-----------------|---------|
| 지배성→가해행동  | .25(.06)        | 4.17**  |
| 우월감→가해행동  | -.16(.06)       | -2.58** |
| 자기존미→피해행동 | -.11(.05)       | -2.09*  |
| 신뢰결핍→피해행동 | .18(.06)        | 3.13**  |
| 피해행동→가해행동 | .85(.10)        | 8.95**  |
| 다중상관지수    |                 |         |
| 가해행동      | .52             |         |
| 피해행동      | .07             |         |

\* $p < .05$  \*\* $p < .01$ , 양방향

따돌림 가해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들일수록 덜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존미 →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청소년들의 자기존미가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0) = -2.09$ ,  $p < .05$ . 즉 자기존미 수준이 높은 청소년

**신뢰결핍 →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청소년들의 신뢰결핍이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0) = 3.13$ ,

$p < .01$ .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청소년들 일수록 더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0) = 8.95, p < .01$ . 즉 집단따돌림 피해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더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이론모형)의 내생변수에 대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외생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로서 확립된 기준은 없으나 높을수록 좋다(조선배, 1996). 그러므로 그 값이 낮으면 그 내생변수의 변량의 많은 부분들이 예측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잔여변수의 변량에 들어가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값이 낮다고 해서 모형이 현실을 잘 요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값이 낮아도 부합도는 높을 수 있다고 한다(이순묵, 1990). 표 5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내생변인들의 다중상관자승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 .52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 .07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변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생변인인 자기찬미, 신뢰결핍 외에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변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의해서 52%나 설명되고 있다.

### 경합모형

본 연구의 설정모형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간에 관련이 없다는 무관련 모형,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 피해행동을 유발한다는 가해행동→피해행동 모형, 집단 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해행동↔피해행동 경합모형들에 대한 부합도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정모형이 무관련모형 $\chi^2(1, N = 370) = 100.90, p < .001$ 에 비해서 부합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정모형 $\chi^2(N = 370) = 132.55, p < .001$ 이 가해행동→피해행동 모형 $\chi^2(N = 370) = 141.17, p < .001$ 과 가해행동↔피해행동 모형 $\chi^2(N = 370) = 139.65, p < .001$ 보다 더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정모형이 경합모형들에 비해서 더 부합도가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표 5. 경합모형들에 대한 부합도 지수(listwise deletion, N = 370)

| 구조모형               | $\chi^2$  | $df$ | $\chi^2/df$ | GFI  | NFI  | CFI  | RMSEA | $\chi^2$ difference |
|--------------------|-----------|------|-------------|------|------|------|-------|---------------------|
| 피해행동→가해행동 모형(설정모형) | 132.55*** | 79   | 1.677       | .954 | .940 | .973 | .043  |                     |
|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무관련 모형  | 233.45*** | 80   | 2.918       | .922 | .886 | .917 | .072  | 100.90***           |
| 가해행동→피해행동 모형       | 141.17*** | 79   | 1.787       | .952 | .935 | .968 | .054  | 7.62                |
| 가해행동↔피해행동 모형       | 139.65*** | 79   | 2.582       | .952 | .936 | .969 | .046  | 7.10                |

<sup>+</sup>  $p < .10$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및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의 성격특성들과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행동과의 이론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청소년들의 성격특성들(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이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과 피해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5개의 경로가 확인되었다. 3개의 경로(지배성→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신뢰결핍→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집단따돌림 가해행동)는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과 부합되게 정적으로 나타났지만, 2개의 경로(우월감→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자기찬미→집단따돌림 피해행동)는 연구가 설정한 가설과는 정반대로 부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높은 수준의 지배성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김용태, 박한샘, 1997; 박경숙 등, 1998; 박정민, 1988; 이종승, 2000; 이창식, 1999; Olweus, 1991; Pellegrini et al, 1999)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배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대한 지배성이 집단따

돌림 가해청소년들의 중요한 성격특성임을 의미한다.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반응적(reactive) 공격자와 주도적 proactive) 공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Dodge & Coie, 1987), 집단따돌림 가해청소년들은 주도적 공격자들로서 이들의 공격행동은 외부의 보상이나 강화를 받음으로써 습득된 도구적 행동들로서 본다(Salmivalli & Nieminen, 2002). 즉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Roland & Idsoe, 2001). 또한 이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쾌락과 흥분으로서 피해자들을 지배하거나 욕보임으로써 야기되는 힘과 친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지배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주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집단따돌림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주로 지배성의 공격적 차원을 통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하게되고, 또래 관계가 안정되는 시기에는 지배성의 친화적 차원을 통하여 다른 가해자들과 연합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Pellegrini & Bartini, 2001; Roland & Idsoe, 2001).

따라서 지배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공격성의 특성과 지배성의 친화적 차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전략이 요청된다. 주도적 공격적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들에서 비공격적 반응에 대한 강화와 더불어 단호하고 일관된 공격행동에 대한 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Crick & Dodge, 1996). 또한

문제 친구의 수가 청소년 집단따돌림 가해의 중요한 예인변인(이훈구, 2001)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다른 가해학생들과의 접촉기회를 감소시켜서 다른 가해학생들과 연합형성의 기회를 주지 않는 행동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우월감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2와 높은 수준의 자기찬미는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3은 부정되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우월감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고 높은 수준의 자기찬미는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월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경험하고 자기찬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덜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의 하위요인들과 EPQ, 자존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Emmons(1984, 1987)의 연구, 정남운(2001)의 연구, NPI와 자존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Soyer, Rovenpor과 Richard(2001)의 연구, Watson, Hickman과 Ronald(1995)의 연구들을 통하여 추론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mmons(1984, 1987)의 연구에서 NPI 하위 4요인 중 착취/특권의식만이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바 있다. 또한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도 리더십/자신감 요인이 신경증적 경향성을 감소시키고, 권력욕구/특권의식이 신경증적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자신감, 과시/칭찬욕구와 우월의식은 자존감을 증가시키지만 권력욕구/특권의식은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

했을 때, 권력욕구/특권의식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관계가 더욱 강해졌으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이전에는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통제 이후에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Watson 등(1995)의 연구에서도 착취/특권의식이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리더십/권위, 우월감/거만함, 자기몰입/자기칭찬 차원들을 통제한 이후에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Soyer 등(2001)의 연구, Watson 등(1995)의 연구에서도 NPI 전체 척도는 부적응적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착취/특권의식 요인을 제거하고 나서는 부적응적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PI 하위요인들 중에서 권력욕구/특권의식만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월감과 자기찬미 요인들은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력욕구/특권의식이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달리 과시/칭찬욕구와 우월의식은 자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월감과 자기찬미도 자존감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NPI가 한쪽 기둥은 부정적 측면인 착취/특권의식이 있고 반대편 기둥은 건강한 자존감과 관련된 적응적 측면인 나머지 척도들이 위치한 광범위한 복합적인 심리학적 연속체(Raskin, Novacek, & Hogan, 1991; Watson, Little, Sawrie, & Biderman, 1992)로서 건강한 자존감이 적응적 측면의 기저에 있음을 시사한다.

박정민(1998)의 연구에서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행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판별변수 가 자기찬미와 우월감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서 자기찬미와 우월감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정원(2000)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집단별로 대인관계성향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사용된 NPI의 하위요인인 우월감과 자기찬미의 핵심은 자기양양으로서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심리적인 기제를 통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집단따돌림 가해자가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Slee, 1994; Austin & Joseph, 1996; 이춘재, 곽금주, 1999; 이해경, 김해원, 2000)도 있지만 집단따돌림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따돌림 가해자들도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Boulton & Smith, 1994; Byrne, 1994; O'Moore & Hillery, 199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청소년들과 피해청소년들 모두 집단따돌림 행동과 낮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ohut는 성인기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응대화와 이상화의 병리적 표출을 초기 아동기에 성취되지 못한 자기애적 욕구의 지속적 열망으로서 일반적인 발달이 중지된 것으로 보았다(Heiserman & Cook,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상담적 개입전략을 통하여 이들의 발달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수준의 신뢰결핍은 집단따돌림 피해행동 을 더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이

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구본용, 1997; 박경숙 등, 1998; 이규미 등, 1998)과 일치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결핍된 청소년들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erry, Kusel과 Perry(1988)는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공포감, 우울 및 신뢰결핍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과 부적응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동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부적응적 특성을 유발한다는 입장(예, Olweus, 1978; Perry, Perry, & Kennedy, 1992)과 아동의 부적응적 특성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한다는 입장(예, Finnegan, Hodges, & Perry, 1996; Troy & Stroufe, 1987)의 상반된 주장들이 있다.

집단 초기에 남아들의 복종적 성격특성이 나중에 이들의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Schwartz, Dodge와 Coie(1993)의 연구, 유치원 신학기에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한학기가 지난 후에 학교를 회피하게 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 등의 종단적 연구결과들도 피해아동의 부적응적 특성이 피해의 원인일수도 있으며, 피해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Hodges와 Perry(1999)는 1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년 전의 아동들의 부적응적 특성과 체력이 1년 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예언변인이고, 1년 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1년 후의 아동들의 부적응적 특성과 또래 거부의 예언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즉 아동들의 부적응적 특성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하

고, 이들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다시 부적응적 특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에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정서적 불안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인격성향을 갖게되고 (최윤정, 진혜경과 김종원, 2001), 결국은 또래들과의 사회화과정에서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여 또래관계에서 소외되어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회화 초기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부적응적 특성을 악화시켜서 더욱 집단따돌림을 유발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의 상담에서는 자기주장, 자기확신, 사회기술과 사교기술의 개발을 격려하는 목표(Stephenson & Smith, 1989)에 우선하여 주변사람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이는 정서적 유발에 따른 반응모델 (Bandura & Walters, 1963; 김준호, 1998에서 재인용)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송동호 등, 1997; 한준상, 2002)과 일치한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피해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더 집단따돌림 가해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 피해-가해 청소년들은 반응적 공격자들(Dodge & Coie, 1987)로서 이들은 자신이 지각한 좌절감에 대한 적대반응과 분노반응으로서 공격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Roland & Idsoo, 2001; Salmivalli & Nieminen, 2002). 즉 이들의 지배적 정서는 분노로서 좌절감이 분노를

유발하고 다시 유발된 분노가 공격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서 가해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송동호 등, 1997)을 중재하기 위한 상담전략으로서 분노조절훈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지배성과 신뢰결핍의 성격특성들은 집단따돌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우월감과 자기찬미의 성격특성들은 집단따돌림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며,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을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들의 성격특성들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적절한 시발점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가장 많은 중학생들(박경숙, 손희권, 1998)만을 표집하여 연구한 결과로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을 유발하는 다양한 청소년의 특성들 중에서 지배성과 자기애적 성격, 신뢰결핍만을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로서 한정된 성격특성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충동성(이창식, 1999; Olweus, 1993; Stephenson & Smith, 1989), 통제의 위치 (Andreou, 2000; Karatzias et al, 2002), 부정적, 긍정적 정서(Karatzias et al, 2002; Smorti & Ciucci, 2000) 등과 같은 성격특성들까지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들을 통하여 자기애적 성격척도의 하위척도들(우월감과 자기찬미)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경우 자신의 내적 상태를 기술하고 식별할 수 있거나 정서, 목표, 욕구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인 자기반영성(self-reflectivity)의 결핍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탈 중심화(decentration) 결핍의 성격적 특징이 있어서(Dimaggio et al, 2002), 수치, 죄의식, 우울의 경험들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분열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외부에 투사하여 버리기 때문에(Kernberg, 1974, 1975, 1984; Heiserman & Cook, 1998 재인용)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 같은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Heisman과 Cook(1998)의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자기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기억조건에 따른 적대감의 표출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사적 검사에서는 나타난 바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착색하는 자기애적 성격자의 심리적 기제를 통제할 수 있는 측정방법(예, 투사법)을 통하여 자기찬미, 우월감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가 재규명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자기찬미, 우월감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과정을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Raskin, Novacek와 Hogan(1991)의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자존감의 선행변인임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자기애적 성격 척도 하위 요인들

과 자존감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척도 하위 요인들, 자존감, 부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거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 종단적 자료를 통한 재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대화의광장* (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pp. 7-35).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김교현, 왕소정 (2000). 학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및 배척 받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 *학생생활연구*, 27, 85-107,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대화의광장* (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pp. 55-84).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김정원 (2000).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 (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1), 109-1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박경숙, 손희곤, 손혜정 (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정민 (1998). 비행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1997).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2), 232-241.

윤덕중 (1997). 학원폭력의 사회심리학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 1-21.

윤진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규미, 문형준,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 현상.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 상담실.

이무석 (1995). 정신분석의 이해.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96).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중학생-성인용. 서울: 중앙적성 연구소.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이종승 (200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인성특성 비교. 학생생활연구, 27, 1-14.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주현, 신지용, 연병길, 한창환 (2000).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2), 221, 230.

이춘재, 곽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이창식 (1999). 왕따의 가해/피해아의 성격특성과 사회성 측정 지위의 차이 분석. 학생생활 연구, 3, 124-133.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춘재, 곽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이혜경, 김혜원 (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이혜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이호분 (1998).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대책. 한국보건학회지, 11(2), 147-149.

이훈구 (2001). 교실이야기 2: 때리는 아이들, 맞는 아이들. 서울: 법문사.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ങ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조선배 (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조은경, 박한샘 (1997). 친구 따돌림에 대한 면접 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pp. 85-121).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최순영, 김수정 (1995).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서울: 학지사.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2(1), 94-1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  
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겨례신문 (2001, 9, 23). 중학생 62% '집단따돌림 경험 있다'.

한준상 (2002). 집단따돌림과 교육해체. 서울: 집  
문당.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  
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한영주(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 기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Andreou, E. (2000).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constructs in 8- to 12-year-old Greek  
school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26, 49-56.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66, 447-456.

Bentler, P. M. (1989).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os Angles: BMDP  
Statistical Software.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25-329.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  
esteem, and directed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Byrne, B. (1994). Bullies and victims in a school setting with reference to some Dublin school.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5, 574-586.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Campbell, W. K.,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a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340-354.

Campbell, W. K., Reeder, G. D., Sedikides, C., & Elliot, A. J.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329-347.

Cudeck, R., & O'Dell, L. L. (1994). Applications of standard error estimates in unrestricted factor analysis: Significance tests for factor loadings and corre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5, 475-487.

Corey, G. (2001).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th ed.)]. (조현준과 조현재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년에 출판).

Crick, N., & Dodge, K.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Dimaggio, G., Semerari, A., Falcone, M., Nicolo, G., Carcione, A., Procacci, M. (2002). Metacognition, state of mind, cognitive biases, and interpersonal cycles: Proposal for an integrated narcissism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4), 421-451.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76-1086.

Gabriel, M. T., Critelli, J. W., & Ee, J. S.

(1994). Narcissistic illusions in self-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62, 143-155.

Hawley, P. H. (1999). The ontogenesis of social dominance: A strategy-based evolutionary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9, 97-132.

Hayduk, L. A. (198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Essentials and advances*.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Heiserman, A., & Cook, H. (1998). Narcissism, affect, and gender: An empirical examination of Kernberg's and Kohut's theories of narcissism. *Psychoanalytic Psychology*, 15(1), 74-92.

Hodges, E. V.,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677-685.

Jacobson, J. L., & Wille, D. E. (1986). The influence of attachment pattern on developmental changes in peer interaction from the toddler to the preschool period. *Child Development*, 57, 338-347.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Jöreskog, K. G., & Sörbom, D. (1981). *LISREL V: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hicago: National Educational Resources.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Kaltiala-Heino, R., Rimpela, M., Rantanen, P., & Rimpela, A. (2000). Bullying at school: An indicator of adolescents at risk for mental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nce*, 23, 661-674.

Karatzias, K. G., Power, K. G., & Swanson, V. (2002). Bullying and victimis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on Behavior*, 28, 45-61.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293-1305.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Ladd, G. W., Ladd, B. K. (1998).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50-1458.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McHosky, J. W.,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92-210.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183-186.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Pepler D., Rubin K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5*, 1171-1190.

O'Moore, A. M., & Hillery, B. (1991). What do teachers need to know. In Eliot M (Ed.), *A practical guide to coping for schools* (pp. 56-59). London: Longman.

Pellegrini, A. D. (1995). The rough play of adolescent boys of differing sociometr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 525-540.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 (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2), 216-224.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1). Dominance in early adolescent boys: Affiliative and aggressive dimensions and possible func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7*(1), 142-163.

Pellegrini, A. D., & Smith, P. K. (1998). Physical activity play: The nature and function of neglected aspect of play. *Child Development, 69*, 577-598.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30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skin, R., Hall, C.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Raskin, R.,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Rigby, K. (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Jessica Kinsley Publishers.

Roland, E., & Idsoe, T. (2001). Aggression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7, 446-462.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Salmivalli, C., & Nieminen, E. (200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school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Aggressive Behavior*, 28, 30-44.

Schaubroeck, J. (1990). Investigating reciprocal causation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1, 17-28.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 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17-338.

Sedikides, C., & Strube, M. J. (1997). Self-evaluations: To thine own self be good, to thine own self be sure, to thine own self be true, and to thine own self be better.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209-269). New York: Academic Press.

Slee, P. 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Smorti, A., & Ciucci, E. (2000). Narrative strategies in bullies and victims in Italian schools. *Aggression and Behavior, 26*, 33-48.

Soyer, R. B., Rovenpor, J. L., & Kopelman, R. E. (2001). Further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Replication and exten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3), 245-258.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Stephenson, P., & Smith, D. (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T. Tattum & D. A. Lane (Eds.), *Bullying in schools* (pp. 45-57). London: Trentham Books.

Sutton, J. & Keogh, E. (2000). Social competition in school: Relationships with bullying, Machiavellianism and person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443-456.

Sutton, J. & Keogh, E. (2001). Components of Machiavellian beliefs in children: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137-148.

Tanaka, J. S. (1993). Multifaceted conceptions of fi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0-39). Newbury Park, CA: Sage.

Tanaka, J. S., & Huba, G. J. (1985). A fit index for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 197-201.

Tanaka, J. S., & Huba, G. J. (1989). A gener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2*, 233-239.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Vaughn, B. E., & Waters, E. (1981). Attention structure, sociometric status, and dominance: Interrelations, behavioral correlates, and relationships to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75-288.

Watson, P. J., Hickman, S. E., Susan, E., Morris, R. J. (1995). Narcissism, self-esteem, and parental nurtura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 61-73.

Watson, P. J., Little, T., Sawrie, S. M., & Biderman, M. D. (1992). Meas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 434-449.

Zamonsty, K. P., Slyter, S. L., & Rios, P. (1993). Narcissistic injury and its relationship to early trauma, early resource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501-510.

원고 접수: 2003 6월 30일

수정원고 접수: 2003년 7월 31일

게재 결정: 2003년 8월 9일



# Adolescents' Dominance, Superiority, Self-Admiration, Lack of Faith in Human Natu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Eun-Hee Lee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Un-Hee Kahng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dominance, superiority, self-admiration, lack of faith in human natu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a sample of 370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measurement model used in this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significant paths between dominance and bulling behavior, superiority and bullying behaviors, self-admiration and victimization, lack of faith in human nature and victimization, and bullying behaviors and victimization. In addition, 3 alternative models we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tests of the 3 alternative models were not supported by the data, further sustaining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zed model. Finally, practical implication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strategie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dominance, superiority, self-admiration, lack of faith in human nature, bullying, victimization

## 부록. 자기애적 성격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Orthoblique rotation)

## 1) 요인상관행렬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 요인 1 (권력)   | 1.00 |      |      |
| 요인 2 (자기찬미) | .15  | 1.00 |      |
| 요인 3 (우월감)  | .24  | .20  | 1.00 |

## 2) 구조계수행렬

| 문항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 2. 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u>.61</u> | .10        | .17        |
| 7.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 <u>.64</u> | .31        | .23        |
| 1. 나는 용감하게 무엇이든 한다                                   | <u>.60</u> | .12        | .26        |
| 17. 모두들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 <u>.46</u> | .21        | .16        |
| 23.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 <u>.50</u> | .22        | .37        |
| 27.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 .52        | .36        | .47        |
| 26. 나는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믿도록 만들 수 있다                        | .49        | .16        | .44        |
| 22.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 .46        | .13        | .33        |
| 6. 나는 내 자신을 좋은 지도자로 생각한다                             | .49        | .15        | .46        |
| 24.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리더가 되길 원한다                      | .46        | .44        | .27        |
| 9.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다룬다                              | .38        | .20        | .23        |
| 13.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싶다                  | .38        | .15        | .24        |
| 16.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 .30        | .10        | .17        |
| 21.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다                     | .15        | <u>.76</u> | .21        |
| 8.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갖고 싶다                           | .25        | <u>.62</u> | .30        |
| 19. 나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 .23        | <u>.59</u> | .31        |
| 3.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다                          | .24        | <u>.55</u> | .13        |
| 15. 나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둘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 .21        | <u>.56</u> | .25        |
|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주기를 바란다                 | .02        | <u>.50</u> | .17        |
| 10. 나는 내가 받을만한 존경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22        | <u>.47</u> | .37        |
| 12.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책 읽듯이 훤히 알 수 있다                     | .34        | .33        | .34        |
| 30.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 .26        | .30        | <u>.75</u> |
| 2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 .25        | .22        | <u>.67</u> |
| 5. 나는 남다르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3        | .21        | <u>.61</u> |
| 25.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 .43        | .25        | .50        |
| 4. 나는 성공할 것이다  | .38        | .22        | .44        |
| 14. 나는 내 몸을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 .10        | .18        | .31        |
| 20.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길 좋아한다                      | .29        | .33        | .35        |
| 28.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 .08        | .27        | .27        |
| 11. 나는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 .12        | .17        | .26        |
| 고유치(Eigenvalue)                                      | 2.86       | 2.70       | 2.50       |

주. N = 408. 요인 1: 권력, 요인 2: 자기찬미, 요인 3: 우월감